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혁신제품 도입해 농업용 수질관리

✎ 이원재 기자 | ⓒ 승인 2025.03.10



거창 신원지에 태양광 물순환장치와 연동된 수처리제 자동살포 수질정화시스템이 설치돼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10일 거창 신원저수지에 태양광 물순환장치와 연동된 수처리제 자동살포 수질정화시스템 2기를 무상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거창 신원저수지는 2022년부터 녹조가 대량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번에 설치된 혁신제품은 녹조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에 수처리제를 정량 공급하고 자동으로 살포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수변구역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혁신제품 운영을 통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태양광을 활용한 수체 순환 활성화로 조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IoT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장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질관리 운영비와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본부는 혁신제품 제공 기업과 협약을 추진해 녹조 발생 시 추가적인 수질 분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재 기자



이원재 기자 sicha@idomin.com